

특특뉴스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020년도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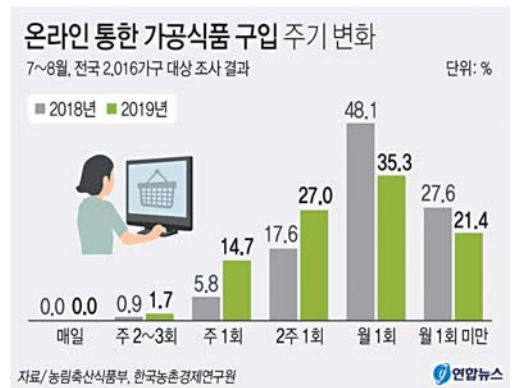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 상금을 지급한다.

2년형 1,600만원(+이자), 3년형 3,0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참여 기업에게는 1인당 2년형(50만원), 3년형(7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나 기업은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그래픽 경제



가공식품 온라인 구매 급증

지난해 온라인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한 가구의 약 80%가 월 1회 이상 구매 빈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에 1회 이상 빈도도 2018년 4가구 중 1가구 꼴에서 작년에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 채널이 가공식품 유통에서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2,0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한 가공식품 구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한 가구의 구입 주기로 '월 1회 이상'이라는 답은 2018년 72.4%에서 지난해 78.6%로 늘어났다.

특히 '주 1회 이상'이 2018년 6.7%에서 지난해 16.4%로, '2주 1회 이상'은 24.3%에서 43.3%로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가공식품 구매 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주 1회 또는 주 2회 이상 고빈도 이용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2020년 경제 힘찬 출발!

한국전력이 본사 소재지인 나주와 광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조성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가운데 목표점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올해까지 에너지 신산업 연관기업 500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500개 기업 투자유치
에너지밸리 기업 투자유치는 2015년 3월9일 보성파워텍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집행된 2차 투자협약시까지 포함하면 목표(500개사) 대비 86%를 달성했다.

한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77개사, 2016년 100개사, 2017년 103개사, 2018년 80개사, 2019년 70개사 등 총 430개사와 1조672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용창출 기대효과는 1만여 명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이 330개사로 전체 76%를 점유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발생시 긴급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한국폴리텍대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갑 한전 사장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34개 신규협약 기업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올해까지 500개 기업 유치...일자리 3만여개 창출 현재 430개 기업 1조6,7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에너지기업 투자 가속화

학을 비롯해 공업고등학교와 함께 수립한 '맞춤형 사전교육 시스템'도 지속적인 운영할 예정이다.

한전은 자체 설립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을 고용노동부 인증 공동훈련센터로 전환해 에너지밸리기업 재직자 교육과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나주혁신도시에 문을 연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안착지원, 공동시험설비 제공 등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에너지밸리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한 한전공대도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

열 단일학부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부지에 들어선다.

◇지구지정·인프라·산단 조성 순항
에너지밸리를 가속화 시킬 각종 지구지정과 인프라·산단 조성도 순항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단지지정을 계기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는 에너지

지 관련기업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만1,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11조4,000억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될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나주 에너지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 나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기, 전자 분야의 국내외 50여개 기업이 입주意向서를 제출했고, 22%의 공적률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12월 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나주혁신산업단지 인근으로 확정된 '나주 에너지스마트 국가산단'도 본격적인 조성을 앞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나주 에너지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는 오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560억원을 투입해 166만여㎡에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인력양성, 핵심역량을 활용한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을 통해 에너지밸리를 글로벌 에너지허브로 조성해 나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신뢰받는 건설산업 이미지 만들자"

건협 전남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공후식)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광주 서구 웨딩그룹티더스 광주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전남 건설인들의 힘찬 출발,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위한 '2020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소속 120여명의 대표회원과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후식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역업체의 도내 대형공사 참여 및 수주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중점건설업체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불공정한 예정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3일 웨딩그룹티더스 광주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20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가격 산정 등 계약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지역건설산업과 전남도회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공 회장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과 시장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신뢰받는 건설산업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 만들겠다"

오영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취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12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오영오 본부장(55)이 최근 취임했다.

오 본부장은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이끌며 토지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등 각종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오 본부장은 광주교, 성균관대, 미시간주립대 석사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기획조정실, 사업계획실, 미래혁신실 등 기획부서와 현장 조직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탁월한 업무 전문성을 갖

췌며,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다. 오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성과 창출과 안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수평적 업무수행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오영오 본부장은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이끌며 토지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등 각종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오 본부장은 광주교, 성균관대, 미시간주립대 석사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기획조정실, 사업계획실, 미래혁신실 등 기획부서와 현장 조직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탁월한 업무 전문성을 갖췌며,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다. 오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성과 창출과 안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수평적 업무수행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2020

광주·전남
사도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착한기업

현명한 소비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킨 우수브랜드를 소개합니다.

다스코이주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회장 한상원
도로안전 시설물 제조 및 설치업

(주) 금호주택
대표이사 김명군
건설, 건축, 토목, 에너지 산업

한진레미콘
대표이사 김광태
레미콘 제조업

(주)중원큐빅블
대표이사 박형식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성공 분당으로 가는 빠른길!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회장 김동기
분양마케팅, 부동산개발전문기업

[주] 세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찬갑
신재생에너지사업

(주)인스나인
대표이사 황인원
생활 도자기 및 티일 생산

행복노인전문요양원
행복주간보호센터
대표이사 김정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한일파이프
대표이사 김홍연
건축자재 도매업

(주)영동이앤씨
대표이사 박정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기자재

우리인전철물산업
대표이사 윤한권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